

일본의 사상종교사(思想宗教史)에서 본 현재와 향후의 행방
글로벌 세계를 향해서

구로즈미 마코토

구로즈미 마코토 선생님은 이번의 강연에서 약 2주전에 발생한 2011년 3월 11일의 토호쿠 관동(東北關東) 대지진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현대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즉, 현대인은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벌써 지운 것처럼 생각해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구상의 역사 전체에서 볼 경우, 매우 이상한 구조이며, 현재의 개발중심 주의적인 자세를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세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야, 역사에 대한 시야가 필요하고, 그러한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사상과 종교는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어서,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역사, 지구를 이해하는 것에 연결된다. 사상·종교·역사를 복합하면서 생각해 가는 것에 따라 기존의 세분화된 학문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낳으려고 하는 시도이기도 하며, 구로즈미 선생님의 사상종교사에는 아주 큰 주제와 문제 제기가 내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강연은 시기가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문제의 발생 직후이며, 많은 개소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언급했다. 선생님은, 원전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바다 가까이에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되었다고 말해서, 쓰나미의 문제는, 상당한 부분은 자연의 문제는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구조의 문제인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인위(人爲) 영역이 확대된 구조는 지구의 역사 전체에서 보면 이상이며, 인간의 사상사에서 봐도 근세(近世) 이후, 특히 근대가 되어 돌출해서 출현한 현상인 점을, 고대, 중세, 근대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의 시대적인 특징을 종교사상을 사례로 들면서 설명했다.

또 동시에 근대 이후의 일본이 경제성장을 중시해서, 역사적인 문제를 방치해 버렸던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 답으로서 역사적인 것을 생각해 가는 것에 따라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서 현재의 경제중심 주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 속에서 일본에서는 사회성의 구축이 유럽에 비해 잘 할 수 없었던 점을 논해서, 게노센 샤프트(Genossenschaft: 조합)와 같은 중간적인 조직이 미약한 점을 말했다. 중간적인 조직이 미약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도 하지 않는 구조가 생기게 되어서, 예를 들면 대학은 개별적인 학문만 추구해서, 문학은 내면만 추구하는 자세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나 한국, 중국의 근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정보의 일방향화(One way)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근의 인터넷의 정보 통신에 의해 쌍방향화(Two way), 다원방향화(Multi way)의 흐름이 새롭게 생기고 있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쌍방향화 경우도 정보 가치는 시장원리나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므로, 현실에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쌍방향화가 어디까지 유효한가는 의문이라고 유보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일본의 사상종교의 특징으로서, 먼저 서양과 비교해서 동양의 활물(活物) 사상을 다뤘다. 다음으로 신도·유교·불교의 습합(習合)과 기독교 배제의 역사를 언급하며, 기독교를 배제하

는 것에 따라 일본적인 종교 모습이나, 동식물에까지 관심을 모으거나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일본적인 종교관이 형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옛 일본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긴밀이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말해서, 역사를 되돌아 봐서, 옛날 사람들의 사상을 파내 가는 필요성을 논했다.

Q&A

Q 사상종교사는 하나의 개념, 카테고리만을 가지는 (기존의) 학문과는 다른 것은 아닌가? 사상·종교·역사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각각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큰 틀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A 맞는 말이다. 다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각 종교도 복수 존재한다. 각 종교를 어느 정도 형태를 파악하면서 평가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Q 사상종교사를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사용하고 있는가?

A 관점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사상종교사는 구조를 볼 경우에 사용하는 도구. 그러나 단어에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사상사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Q (지진과 쓰나미에 관련하며 사회적으로 풍부하지 않는 장소에 원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관점으로부터) 사회적인 불합리함을 사상종교사적인 관점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A 도쿄 주변에는 만들지 말고, 원전을 토호쿠에 만든다. 이것은 사상종교사뿐만이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설명할 수는 없다.

Q 일본의 종교에 관해서, 사망자를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설명이 있었지만, 죽었는데도 죽지 않는 상태란?

A 불교로 말하는 왕생과 기독교로 말하는 신의 나라에 간다는 것에서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며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 사자(死者) 감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점도, 현대인과 옛날 사람으로는 크게 다르다.

Q 게노센 샤프트가 일본에서는 잘 기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제학적 관념에서 보면, 가가와 토요히코(賀川豊彦)라는 사람이 1920년대에 사회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다. 외국에서 온 사상이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A 가가와 토요히코,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 등의 사람들이 조합운동을 했다. 그러나, 그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고 있지 않는다. 또, 운동이 그 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잘 알려지지 않는다. 평가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Q 지금은 스트레스 해소 등 살아 있는 인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죽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죽은 사람과의 대화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형편이 좋은) 일방적인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A 좋은 사람과 대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대화에 의해 무엇인가가 빨리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대화를 계속해 가는 구조가 중요하다. 사망자 뿐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중요하다.